

2021.11.1.(월) 조간 <온라인은 즉시 가능>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자료문의) 경영기획실 김상연 실장 (053-980-8200, sykim@kbri.re.kr)

## 한국뇌연구원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평가에서

### 기관 설립 첫 “우수” 등급 달성

**- 2021년 설립 10주년에 맞춰 뜻깊은 성과로, 향후 목적기초형 연구 등 글로벌 뇌연구 선도기관으로 도약 기반 조성 -**

- 한국뇌연구원(KBRI, 원장 서판길)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(과기정통부)에서 실시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에서 2012년 기관 설립 이후, 10주년이 되는 올해 처음으로 “우수”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.
-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는 일반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달리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여, 해당 기관장의 임기 동안 주요성과에 대해 뇌과학 관련 학계, 산업계, 연구계 등 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철저하게 면밀, 엄정하게 평가한다.
- 한국뇌연구원은 2021년 평가 대상 기관 16개 기관 중에서 드물게 “우수” 등급을 받았으며, 특히, 올해 2021년은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기관 설립이래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최고로 높은 평가등급을 획득하여 그 의미가 더욱 크다.
- 이번 평가에서 한국뇌연구원은 연구와 경영, 여러 분야에서 설립 10주년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성과창출 기반 조성 과 국가 뇌연구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- 특히, ▲연구자 중심의 성과창출형·연구몰입환경 조성 ▲ 국내외 우수연구인력 유치, 육성 ▲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▲ 대외 협력 및 뇌과학문화확산 노력 ▲ 전략적 조직관리와 청렴문화 조성 등 여러 평가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으며,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 혁신 정책과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경제활성화에 발맞춰 새로운 뇌과학 국책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□ 한국뇌연구원 서판길 원장은 “국가 유일의 뇌연구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연구혁신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고 뇌의 기초-원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글로벌 뇌연구 선도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다.” 고 하며, “이와 더불어 뇌파, 뇌영상을 이용한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목적형 기초연구 확대 등 혁신적 뇌산업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일자리 창출 등 뇌과학을 기반으로 「한국판 브레인 뉴딜(Brain New Deal)」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다” 라고 말했다.